



이용돌, 한영신 선교사 바탕개교 이야기 2012년도 전반기

Rev. Paul Yong Doll Lee
Cuta, Batangas City, Philis.
<http://www.bpck.org>
0919-569-1466, 070-8265-5419

바탕가스 장로교회 (Batangas Presbyterian Church) 723-5509, 5510

바탕가스 교회소식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선교 동역자님

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올해도 매년과 동일하게 원단금식으로 3일을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올해에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기대하고 기도하였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루하루를 깜짝 놀라게 해 주셨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배후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열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2 새로운 집사 임명식
“주여 이들을 사용하여주소서”

저희 바탕가스 장로교회(Batangas Presbyterian Church)를 올해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동체(Beautiful People

서약식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영적인 부모들 또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원하겠다고 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2월에는 밸런타인데이 주일은 만들어서 주님께 사랑하는 고백하는 RED 주일도 있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소재하고 있는 Grace Theological Seminary의 Dr. Jeffrey Gill 학장님께서 저의 교회에 오셔서 귀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신 그날이 저희 교회가 2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두 명(Renz 간호 조무사자매와 Anlyn 선생)

의 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일로일로(Iloilo City, Philippine)에 정박 중인 복음 배인 M/V Hannah 한나호(대표: 박수진목사)로 파송하였습니다.



2012 청소년들 순결 서약식
“주님 저의 몸과 마음은 제 것이 아니오니”

Community)로 칭하고 개혁하고 개조하는 해로 삼았습니다.(Year of Renovation) 그리고 올해도 서리집사가 12명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교회의 직분 자들은 지원제로 합니다. 모든 교인은 새 신자반을 거쳐서 입교, 세례를 받은 후 3년부터 교회 재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매 연말에 재직훈련을 받은 후 개인의 신앙생활을 객관적으로(출석, 헌금, 전도 생활등) 체크 한 후에 새해에 봉사를 할 것인지를 본인이 결단한 후 지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는 12개 지역의 아웃트 릿치, 기존집사 7명 외에 12명의 새로운 서리집사와 21개의 셀 조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첫째 주일은 전 교인들의 서약과 특별히 청소년들의 순결



선교사 파송식

그리고 지난 아프가니스탄에서 7년간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윌리엄’(Rev. William) 선교사가정은 말레시아로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시켰습니다. 그곳에 아프간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 중앙아시아와는 다르게 말레시아 쿠

알라룸푸르는 좀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를 전해 왔습니다.



2012 RED 주일



Dr. Gill 설교 중

바탕가스 20주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어제같이 이곳 바탕가스에 흠뻑으로 내려왔는데 이곳에서 사역을 한지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시종일관 이곳 바탕게노(바탕가스 사람들)를 위한 부족한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서는 아시고 오늘을 있게 하셨습니다. 위하여 관심과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올해 20주년 창립 예배는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미 함께 살고는 있지만 결혼식을 못 올린



가정을 선정하여 합동 결혼 예식을 예배 2부 순서로 올렸습니다.

교인들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며 주님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오래 전부터 창립 예배의 초점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결혼은 하였으나 아직 결혼식을 못 올린 젊은 교인들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조



파송 선교사들을 위하여 전 교인들은 기도함

사해 보니 원래는 7가정이 있었으나 이중 4가정은 출생신고가 안 되었거나 행정상 결격사유가 되었고, 또한 아직 남편이 준비가 안 된 가정은 제외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안틱(멜), 류엘 파시아(테스), 죠셉 봉온(체) 가정을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1부 예배는 갈릴리 가나의 잔치에서 물로써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을 연상하면서 “맛이 있는 삶(Masarap na Buhay)”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결혼식은 예배 중 축도 전으로 하였으며, 3쌍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길 기도하며 축복하였습니다. 특별히 늘 느끼지만 이 나라의 결혼식의 의식은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성경, 동전, 베일, 끈, 촛불 점화 등으로 스페인 시대에서부터 왔던 예식들이 진행됩니다. 교인 모두는 관객이었고 이들을 위해서와 하객들인 교인들을 위해서 축도함으로써 예배는 마치고, 밤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바깥마당에는 아름답게 장식한 텐트 속에서 제3부 피로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동참하기 위하여 서로가 물질과 봉사도 도왔고 전교회가 하나가 됨을 직시하였습니다. 여기 저기 모인 3마리의 돼지가 이것을 증명하는 듯 하였습니다. 선교지를 향하는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5월의 무더운 여름날에 해양 경찰의 세 딸과 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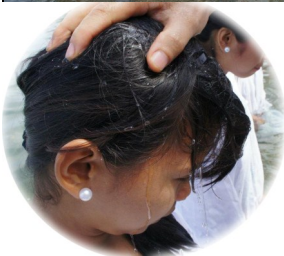
결혼식의 화동들

BPC 20th Anniversary

From this Moment on...
We are One...

Ephesians 5:31

2012 첫 세례교인들(가운)



클라라에서 계신 프레시 할머니의 새로운 세례교인들을 주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이날은 바닷가에서 교인들과 함께 축하와 교제의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바탕가스 교회 고난 주간, 부활절 풍경

무엇보다도 고난주간에서는 매년 해 오던 행사가 매일같이 모여서 진행되었습니다. 예배당 대청소(화,수), 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역을 정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여전도회는 이 시간에 즐겁게 환담을 나누며 교회 커튼 세탁과 다림질과 청소로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성경필사(목)에 임하였습니다.



2012 교회 대청소 중

그리고 금요일 오전에는 교인 7명을 선정하여 주님의 가상철언재현하고 간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며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하여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리고 영화상영(금요일 밤)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교회 벽에다 9X7m의 대형 스크린을 걸고는 동네사람들을 위하여 이 나라의

믿음의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일 새벽아침은 교회의 옥상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외쳤습니다.

간증 하고 있는 '툼' 형제와 '마리' 자매

매년 드리는 부활절 예배는 White Sunday 로서 모든 교인들이 하얀 옷을 입고 주님께 예배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였습니다.



"교회를 내 몸같이" 대 청소



교회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는...



복음 영화상영(성 금요일 밤)



부활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교회옥상에서



부활절 아침예배는 White Sunday



기도와 사랑으로 토요일 만들어졌던 500개의 부활의 계란은 교인들의 손에서 아웃릿치 지역으로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왕의 자녀들 기독교 학교
(King's Kids Christian Academy) 소식



필리핀의 내일의 지도자와 하나님
의 군사로 배양하고 있는 왕의 자
녀들 기독교 학교(KKCA)사역은
방학이 끝난 6월을 시작하여 이듬
해 3월에 졸업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졸
업 전에는 성경캠프로써 이들의 신앙
을 마무리 해 줍니다. 그리고는 초등학
교, 고등학교 사은회가 있습니다. 학교
와 선생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귀한 행
사입니다. 올해는 필리핀 마닐라 어린
이 전도협회 책임 선교사인 최광기목
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
니다.



PCP 사무총장 달리사이목사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17회 유치원, 제
12회 초등학교, 제4회 고등학교 졸업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울산 정자교회 정재기목사님과 만평교
회(김성철목사님), 에덴교회(이상대목사님)께서 참석하
셨습니다.

여름방학에는 교사들과 함께 타 학교탐방을 하여 견문을
넓히고 왔습니다. 안티폴로에 있는 마닐라 한국학교를
방문하여 홍세기 교장님과 질의 응답 등으로 앞으로의
필리핀의 교육에 많은 도움을 받고 왔습니다.

무더운 두 달의 여름방학(4월, 5월)이 마친 지난 6월에는
제18회 입학예배가 본당에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닐라
에 계시는 김현국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학생들에게 도전
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2012 KKCA 졸업예배



금년에도 15명의 교사와 8명의 직원과 120
여명의 학생들이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 교육사역에 임합니다. 차세대의 미래가
이들에게 있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부터 필리핀 교육부의 K-
12 정책으로 고등교육까지의 과정이 10년
에서 12년이 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외부에 도움이 없이 나무로, 벽돌로, 그
리고 조립식 판넬로 부족한 교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것을 VIP라고 칭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을 VIP
로 모십니다.” Vision Investment Project) 주 필리핀
선교부에서는 학교 증축에 관한 프로젝트를 허락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곳 필리핀에서 교육 선교 사역은 정말 내일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사역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
히 필요합니다.



왕의 자녀들 기독교 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신 내외분들과